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통합

산자부, 제조원가 절감 및 운영 일원화로 소비자 사용확대 유도

산업자원부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과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해 현재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전력공사에서 각각 별개로 운영중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e마크)와 고마크 인정제도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e마크)로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그동안 2개 제도는 전구식 형광등기구, 안정기, 자동판매기 등 일부 품목이 중복되고 제도 운영 취지가 유사해 제조기업에게는 마크 취득에 따른 비용 부담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선택시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제도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고효율기자재 보급을 촉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01년9월까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자부고시)을 개정해 고마크제도 관련규정을 통폐합하고, 향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리베이트 지원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e마크)을 받은 품목에 한하며, 주관기관은 한전과 에너지관리공단이 품목을 분담해 담당하되 장기적으로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에 근거한 산업자원부고시에 의거 1996년 고효율 유도전동기 및 조명기기를 시작으로 현재 전력용 변압기, 모터, 펌프, 보일러, 고조도 반사갓 등 19개 품목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 주도의 고효율기기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로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 건물에 해당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ESCO(에너지절약 전문기업)사업 대상품목 및 각종 자금지원을 실시해 고효율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고마크 인정제도는 전력 수요관리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자체 전기공급규정에 의거해 1994년부터 조명기기를 시작으로 현재 전구식 형광등기구, 안정기, 자동판매기, 인버터 등 4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다. 전력 부하관리를 목적으로 제품 구입시 수요자 리베이트 자금 지원을 통해 보급 촉진을 유도하고 있는 제도이다.

산업자원부는 제도 통합에 따라 제조기업에서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에 대한 기술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고, 정부도 고효율기자재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져 에너지 절약제품의 보급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비교

구 분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 (에너지관리공단)	「고」 마크제도 (한국전력공사)
관련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을 위한 규정)	한전전기공급규정 제109조 (고효율 조명기기 성능시험 및 사후관리 운영규정 등)
대상품목	19개 품목(전구식 형광램프, 안정기, 형광램프, 반사갓, 펌프, 모터, 자판기, 보일러 등)	4개 품목(전구식 형광램프, 안정기, 자판기, 인버터 등)
인증현황	129기업 648모델	38기업 147모델
지원제도	자금융자 우선구매 및 의무사용	구매자 리베이트
사후관리비용	에너지관리공단 부담	제조기업 부담(약 150만원/모델)